할리우드 판 '엽기적인 그녀'

'시월애' '8월의…' 등 한국영화 리메이크 열풍

'거울 속으로' '올드 보이'도 할리우드에 판권 팔려

할리우드 판 '엽기적인 그녀'의 주연을 맡은 엘리샤 커스버트.

'한국영화가 세계로 나간다'

국내 상영 당시 인기를 모았던 한국 영화들이 할리우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리메이크 되며 한국 영화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전지현·차태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는 최근 캐스팅을 마치고 11월부터 뉴욕 일대에서 촬영을 시작한다.

'My Sassy Girl'이라는 제목으로 촬영되는 이번 작품의 남·녀 주인공은 '브링 잇 온'에 출연했던 제시 브래포드와 TV 시리즈 '24'와 영화 '내게 너무 아찔한 그녀' 등에 얼굴을 보였던 엘리샤 커스버트가 맡았다. 감독은 '러브 미 이프 유 데어'의 얀 새뮤얼. 중서부 지방의 소도시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철면피에 가까운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전지현·이정재가 주연을 맡았던 멜로 영화 '시월애'는 할리우드 톱스타 키에누 리브스와 산드라 블록이 주연한 '레이크 하우스'로 만들어져 최근 한국 영화팬들을 만났다.

2년의 시간차를 두고 같은 공간에 사는 두 남녀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기본 줄거리는 같지만 바다 위에 지어진 집 '일마레(Il Mare)'가 호수 위의 집 '레이크 하우스(The Lake House)'로 바뀌었고 여주인공의 직업도 성우에서 의사로 달라졌다.

1997년 개봉돼 전국민을 눈물바다로 몰아넣었던 박신양 최진실 주연의 영화 '편지'는 태국영화 '더 레터'로 재탄생했다.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숨진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불교사상에 잘 녹아낸 작품으로 2004년 태국에서 개봉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우리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아 소폭 개봉했다.

허진호 감독의 1998년 작으로 한석규·심은하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리메이크한 동명의 일본영화도 최근 개봉했다. 죽음을 앞둔 사진사 정원과 구청 공무원 다림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한국 영화와 기본 줄거리, 장면 등이 매우 흡사한 게 특징. 여주인공 직업은 주차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에서 교사로 바뀌었다.

그밖에 김지운 감독의 '조용한 가족'은 일본의 미이케 다케시가 '기타쿠리가의 행복'이라는 이름의 뮤지컬 코미디로 리메이크 해 부천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또 전도연·한석규가 주연을 맡았던 장윤현 감독의 '접속' 역시 독일에서 '해피엔드와 여인2'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 됐었다.

그밖에서 최근 할리우드와 리메이크 판권 계약을 맺은 유지태 주연의 '거울 속으로'를 비롯, '조폭 마누라' '달마야 놀자' '올드 보이' '장화, 홍련' 등도 판권이 팔려나갔다.

반대로 외국 작품을 리메이크 한 경우도 있다.

배용준·전도연이 출연한 '스캔들-조선 남녀상렬지사'는 쇼데를로 드 라클로 소설 '위험한 관계'를 원작으로 이미 할리우드에서 세번 영화로 만들어졌었다. 존 말코비치 주연의 '위험한 관계', 아네트 베닝과 콜린 퍼스 주연의 '발몽' 그리고 젊은 감각으로 만들어졌던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이 그것이다.

또 '워터 보이스' '스윙 걸스'를 만든 야구치 시노부의 '비밀의 화원'은 '산전수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졌으며 유덕화 주연의 느와르 영화 '천장지구'가 리메이크 준비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지현·차태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 한석규·심은하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이름으로 리메이크한 일본판 '8월의 크리스마스' (위에서 부터)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가을로 삼풍백화점 붕괴를 소재로 '번지 점프를 하다'의 김대승 감독이 만든 멜로 영화.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여수 헐리우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패션 잡지사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의 고군분투기를 중심으로 패션세계를 유쾌하게 풍자한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마음이… 오랫동안 남매의 친구가 돼줬던 개 마음이는 동생이 죽고 난 후 차갑게 변한 찬이(유승호)에게 버림받는다. 마음이는 찬이를 찾아 떠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원피스:기계 태엽성의 메카거병 인기 만화 시리즈가 영화로 옮겨졌다. 세계 최고의 해적왕을 꿈꾸는 이들의 모험이 시작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거룩한 계보 개성있는 블랙 유머로 유명한 '장진'감독과 조폭이 만났다. 피할 수 없는 두 남자의 싸움이 벌어진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밀리오레,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 순천 프리멋, 여수 헐리우드, 여수 씨너스
DOA 전 세계 파이터들이 모여 승자를 가리는 DOA(dead or alive)가 열리는 도아 섬에서 펼쳐지는 미녀들의 화끈한 액션극이다. 12세 관람가.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라디오 스타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과 박중훈, 안성기 두 배우가 빚어낸 잔잔하고 따뜻한 이야기. 12세 관람가.	롯데(첨단),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광주·첨단), 하미, 목포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타짜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 등 화려한 출연진이 펼치는 화끈한 타짜(전문도박사를 가리키는 은어)들의 세계가 펼쳐진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광주·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여수 헐리우드
가문의 부활 '가문 시리즈'가 돌아왔다. 가문의 위기의 '백호파'가 또 한번 코믹한 모습을 선보인다. 주인공들의 촌스러운 헤어스타일과 복고풍 의상도 웃음에 한몫 거든다. 15세이상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하미, 여수 씨너스, 여수 헐리우드
팔월의 월요일들 이리저리 꼬이는 사랑을 맛깔스럽게 엮어낸 미스터리 로맨스로, 섹스는 어긋나고 고백은 쪽팔리며 의심이 난무하는 3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15세 관람가.	광주극장

추억의 영화 '고래사냥' 상영

광주극장 내달 4일 배창호 감독 '길' 개봉 축하

광주극장이 다음달 4일 오후 4시 배창호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인 '고래사냥'을 상영한다.

이번 상영은 배창호 감독의 최근작인 '길' 개봉을 축하면서 마련한 이벤트로,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광주극장 카 페 (cafe.naver.com/ cinemagwangju)와 광주방송(KBC) 라디오 프로그램 '김학실의 추억찾기' 등을 통해 관람권을 구할 수 있다.

김수철, 안성기, 이미숙이 주연한 이 영화는 지난 1984년 개봉한 이후 22년 만에 극장에서 관객과 다시 만나게 됐다.

영화는 소설가 최인호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윤락가에 팔려온 말 못하는 춘자(이미숙)를 고향까지 데려다 주기위해 병태(김수철)과 왕초(안성기)가 벌이는 소동을 로드 무비 형태로 다뤘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유지태 애절한 눈빛 연기 가슴 찡

주목! 이 영화 '가을로'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결정되면서 일찌감치 영화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영화 '가을로'(감독 김대승)가 개봉했다. 영화는 1995년에 일어난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을 소재로 안타깝게 이별한 연인의 이야기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결혼을 약속한 현우(유지태)와 민주(김지수). 행복한 시간은 신혼 준비를 위해 백화점을 찾은 민주가 백화점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정지한다. 민주의 죽음으로 차갑게 변한 현우는 우연히 민주가 남긴 수첩을 전달받고 수첩에 나와있는대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 곳에서 세진(엄지원)이라는 여자와 계속해서 마주치게 된다.

'봄날은 간다' 이후 오랜만에 멜로로 돌아온 유지태의 탁월한 감정 표현이 일품이다. 가슴을 울리는 매력적인 목소리와 애절한 눈빛 연기는 관객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번지점프를 하다' '혈의누'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대승 감독은 이번에도 잘 만든 멜로 영화를 탄생시켰다. 새삼 누군가가 그리워지게 만드는 영화로, 제목처럼 가을이라는 계절에 잘 어울린다. 12세 관람가.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